

## 범교과 학습 주제 설정의 기준과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이정렬 · 박소영<sup>†</sup> · 강현석  
(경북대학교 · <sup>†</sup>대구대학교)

### An Analysis of Professional Recognition on Criteria and Appropriateness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Jeong-Ryeol LEE · So-Young PARK<sup>†</sup> · Hyeon-Suk K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up>†</sup>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tting and directions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based on research on experts' recognition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The study method adopted was Delphi, and the subjects selected were curricular experts. This study has drawn following results: first, regarding the essence and problems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even among the experts, there is no opinion agreed about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concept, essence, or characters. Second, more detailed discussion is demanded to select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nd set up a guideline about the operation. Third, it is needed to examine closely if presently suggested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re duplicated or not and consider related subjects connected with those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to improve education more systematically.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profound and systematic research on core competence that can embrace those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Fifth, to cope with changes in society and demands at school, it is needed to discuss how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should be added or which learning topics should be added.

**Key words :** Curriculum revision, Delphi survey research,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Rationalization

#### I. 서론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를 중심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교육적 성취는 교과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통해 평가된다. 하지만, 어떠한 영역과 내용이 교과로 제시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가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만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 문화의 흐름을 수시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교과교육과정이 지닌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범교과 학습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Park Soon-Kyung et. al., 2014). CIDREE(2005)의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3-850-4364, syoungpark@daegu.ac.kr

\* 이 연구는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Kang, Hyeon-Suk et al.(2015)의 「학교현장,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 조사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보고서에 따르면, 범교과 학습의 등장은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식, 태도를 준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CIDREE, 2005). 범교과 학습을 지칭하는 ‘cross-curricular’는 분리된 교과교육에 기반한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며, 여기에는 몇 개의 영역에 걸쳐지거나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는 통합적인 학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Lee Sang-eun & So Kyung-Hee, 2008).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교과 영역을 초월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범교과(cross-curricular)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범교육과정 차원(cross-curriculum dimensions)’(QCA, 2009), ‘범교육과정 주제(cross-curricular topic)’(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4), ‘폭넓은 학습 영역(broad areas of learning)’(Ministere du l'Education, 2001; Ministere du l'Education, 2004; Ministere du l'Education, 2007), ‘간학문적인 주제(interdisciplinary topic)’(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등 각기 다른 용어로 ‘cross-curricular’의 범교과 영역의 아이디어를 교육과정에 수용하고 있다(Park, Hee-Kyung, Choi, Jin-Young & Lee, Kyung- Jin, 2014).

범교과 학습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통적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Park, Soon-Kyung et. al., 2014). 즉, 범교과 학습이 교과주의 및 분과적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등장한 만큼 범교과 학습의 의의는 전통적인 교과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범교과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정하기보다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제7

차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을 띠는 주제들이 교육과정에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범교과 학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문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국가·사회적 요구의 수용이라는 기능적 측면에만 주목해 오고 있으며 따라서 범교과가 본래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정 통합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ark Soon-Kyung, 2006; Lee, Mi-Sook et. al., 2009).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범교과 학습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고려하면서 범교과 학습의 의미와 주제 선정, 그리고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주제 설정의 기준과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에 적합한 범교과 학습 주제 설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한국 사회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어떠한 기준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설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방향과 기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의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범교과 학습에 관한 인식을 분

석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E-mail과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지를 E-mail로 송부하여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4년 6월~7월에 실시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2차 델파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차 델파이 조사는 2014년 8월에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일반적인 성격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2. 조사 대상

델파이 조사에는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대상은 5명의 일반 교육과정 전문가와 5명의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이다 (<Table 1> 참조).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 운영 방안 그리고, 한국의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문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subjects

subjects		N
Curriculum expert	Elementary	2
	Middle	3
topic education course expert	Korean, English, Mathematics	2
	Ethics/social studies	1
	Science	1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 second foreign language	1
All	10	

## 3.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1차 조사를 통하여 각 영역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구들을 2차 델파이 조사지의 문항으로 반영하

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을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과 운영의 문제와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유기술식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
- 현행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문제점
- 범교과 과목 신설에 대한 견해
- 향후 추가 선정되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
-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개선 기준
- 범교과 학습 주제 적정화
- 범교과 학습 주제 개별 교과 통합 가능성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견해 중 중요도를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문제점

#### 가.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자유기술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념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유된 견해와 더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의견들을 다음과 같다.

-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고 이 사회를 그리고 성장해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관련된 여러 교과와 활동에 걸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n=4).

- 교과를 가로지르면서 다각도로 가르쳐야 함. 특정 교과에서 분담하기에는 너무 중요함. 범교과 또는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더 효과적임. 국가 사회, 시대적 요청 사항임(n=5).
-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기타 영역의 한 가지(n=2).
- 교과 수업 외에 교사가 수업 내용을 구성할 때 근거가 되는 영역과 주제들
-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쟁점을 분명히 이해하며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주제들.
- 창의적이고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특정한 사회문화적 이슈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한 것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념과 본질, 성격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 2차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의 견해 중 가장 적합성이 높은 내용은, ‘여러 교과를 가로지르면서 다각도로 지도되어야 할 학습 주제’(평균 3.9), ‘관련된 모든 교과에서, 교과의 내용이나 방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학습 주제’(평균 3.7)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정교과에서만 가르치기에는 너무 중요하여 교과별로 중복되거나 범교과적으로 통합적으로 지도할 때 더 효과적인 주제들’(평균 3.6)에 대한 견해도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Table 2> 참조).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한국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견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특정 교과에 제한되기보다는 여러 교과에 걸쳐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면서 여러 교과별로 중복되거나 통합적으로 가르쳐져야 할 학습 주제라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지, 여러 교과를 가로 지르며 다각도로 지도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산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2> 참조).

<Table 2> Result of the Second Delphi Survey on the Concept and essence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Contents	Result	
	M	SD
Learning topics that should be approached at various angles through various topics	3.9	1.101
Learning topics that should be covered through the contents or teaching methods of a topic, in every relevant topic	3.7	1.337
Topics that are so important to teach in a single topic and are more effective to teach in several topics repeatedly or to teach in an integrated way through cross-curriculum	3.6	1.174
Topics that reflect demands of nation, society, and times in education	3.3	1.337
Topic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students' real life and need to be studied in many topics	3.3	1.059
Topics selected and presented mainly about socio-cultural issues and values	3.2	1.135
The areas and topics that provides a basis when a teacher devises a class outside a regular curriculum	2.4	0.966
Other cases except for curriculum activities and creative activities of experience	2.2	1.317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급속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유된 인식을 나타낸다.

하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창의·체험 활동이라든가, 교과교육과정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교과를 가로지르면서 다각도로 지도되어야 할 학습 주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주제 설정의 기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나. 현행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문제점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1차

텔파이 전문가 조사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 주제의 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나치게 주제가 너무 많고 무분별하다. (n=6)
- 39개 학습 주제들이 상호 중복되는 면이 많다.
- 교육 이외의 담론과 권력으로 사안이 필요할 때마다 시대적·사회적 요청으로 민원성으로 밀고 들어온다. (n=4)
- 정부와 교육부, 교육과정 학자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고 범교과 학습 주제가 선정된다.
-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고 그 비중의 중요 정도가 모호하고 주제의 구체성 정도가 일관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채 중복되고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
-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n=2)
-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구가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여 완전 개방해야 한다.
-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1차 전문가 텔파이 조사 결과 범교과 학습 주제가 지나치게 많으며 상호 중복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모호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복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선정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볼 때,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에서 외재적 기준(국가·사회적 요구)과 내재적 기준(교육적 요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준이 모호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유된 견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현재 제시된 39개의 주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하였다(평균 4.7). 그리고, ‘선정기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며’(평균 4.5), ‘사회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된다’(평균

4.5)는 문항에 대부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주제들이 많으며’(평균 4.4), ‘교육적 담론보다는 정치적 요청으로 정해진’(평균 4.4)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문제이며’(평균 4.1),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과정학자를 중심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정해지는 것’(평균 3.9)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Result of the Second Delphi Survey on the Problems of selecting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Contents	Result	
	M	SD
There are too many topics	4.7	0.483
Criteria of selection are nonexistent or ambiguous.	4.5	0.707
Whenever there is an issue, topics of crosscurriculum are proposed as a stopgap measure.	4.5	0.707
Many topics are repeated.	4.4	0.516
Topics of crosscurriculum are selected not by educational discussions but by the requests of social organizations or the political circle.	4.4	0.699
Deciding and regulating topics of crosscurriculum itself is a problem.	4.1	1.101
Curriculum is composed and topics of crosscurriculum are chosen mainly by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lars of education.	3.9	0.994
There are many topics that do not motivate students to study.	3.6	1.174

위의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범교과 학습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된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 각계 각층의 요구와 국가·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행되는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 한국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 분야의 다양한 민원성 요구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거할 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바탕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설정할 때, 교육의 본질에 대한 기본 요구에 적합하도록 사회·문화적 요구를 범교과 학습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 2. 범교과 과목 신설 및 운영에 대한 견해

가. 범교과 과목 신설 및 추가 주제 제시

1차 조사에서 범교과 과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무응답 n=1)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는 전문 과목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범교과 주제로서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 ‘인간과 자연: 문제와 해결책’으로 하고 팀티칭으로 운영
- 행복 또는 행복한 삶 (n=2): 개인적인 삶의 만족 및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됨. 학생들이 자기 관찰과 성장, 자기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 배려: 도덕교과나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배려를 가르치고 있지만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향토 이해: 자신의 주위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해가 축소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기존 다문화교육이 시혜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음)
- 노동교육(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제시된 특정 주제들을 대상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단, ‘행복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n=4). 이는 최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는 행복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Result of the Second Delphi Survey on the Adding topics of cross curriculum

	①	②	③	④	⑤
happiness	3	2	2	1	2
caring	0	3	1	2	4
understanding of local areas	0	2	3	3	2
cultural diversity	0	2	3	2	3
labor	0	1	4	3	2
solution of conflict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0	5	1	2	2
self identity	1	2	4	2	1

- ① Since it is hard to deal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it should be presented as an independent topic in cross-curricular learning.
- ② Though it can be dealt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it is better to leave it as an independent topic for cross-curricular learning.
- ③ It does not have to be presented in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and can be dealt with in separate subjects.
- ④ Regardless of whether it can be dealt with in separate subjects, it need not be presented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 ⑤ Because it can be included in the subdomains of other topics or integrated with other topics, it does not need to be presented as an independent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위의 결과에서 볼 때,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 축소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 사회 문화적 이슈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배려’, ‘행복교육’,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견해는 새로운 주제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

러낸다고 할 수 있다.

#### 나. 범교과 학습 주제의 운영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과목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국가 수준 문서에서는 ‘범교과’, ‘융합교과’, ‘통합교과’, ‘창의·인성교과’ 등의 명칭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 방안은 단위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요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방안을 단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김으로써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의욕을 갖도록 격려 (n=2)
- 지금처럼 교과활동, 창체 이외의 활동을 ‘기타 활동’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 학교에 재량권을 주어 운영하도록 (n=3).
- 많은 수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학교에 선택의 자율성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되고, 각 교과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를 통해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적인 단위 예시와 함께 제시하면 된다.

범교과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학교의 자율성 설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자율성 확보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 3. 범교과 주제 선정 기준 개선 및 적정화 방안

#### 가.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 개선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을 위한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교육적 논리로 볼 때 적절한가? (n=2)
- 교과, 범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도가 가능한가?
- 시민들이 빈번히 경험하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 영역에 일반화 가능한 것으로 문제의 구체성 수준이 비슷하게 명료하게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내재적 가치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n=2)
- 포괄적인 상위 범위 또는 핵심 역량을 정하고 그 하위 영역에서 학습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흡수 통합 (n=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범교과 학습 주제가 많으며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기준에는 다양한 의견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서 공유된 합의점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의 기준이 한 가지 관점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 중 교육과정에서 제시될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나. 범교과 학습 주제 적정화 방안

범교과 학습 주제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39가지의 범교과 학습 주제들 중 교과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제는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총론에는 꼭 제시될 필요가 있는 주제만 제시하자

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적정화 하자는 견해에 대해 거의 동의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답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상위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지도가능 한 관련 교과 또는 활동을 명시한다.
-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하고 수업시간에 다뤄질 수 있게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학습 주제를 민주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실태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9개 학습 주제들의 관련성과 위계를 파악하여 보다 정선화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습 주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의 실태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범교과 학습 주제들의 위계성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안,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된 주제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 방안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상위 영역을 몇 개로 구분하고 그 하위 범주에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수를 적정화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를 체계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로 제시되었다. 상위 영역을 범주화할 때 ‘총론에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그 하위 범주로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영역별로 포함시키는 방안’(평균 3.9)과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큰 범주로 구

분하여 상위 범주에 내용이 비슷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함시키는 방안’(평균 3.7)이 제시되었다. 한편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확실적으로 정하거나 제한을 두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평균 3.5)도 강하게 제시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Result of the Second Delphi Survey on the Problems and rationalization of selecting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Contents	Result	
	M	SD
In the outline of the curriculum, clearly present what are the core capacities required for students in Korean education and let the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relevant to the capacities be integrated and fully covered.	3.9	1.287
Grasp the relationship and status of the 39 topics and categorize and organize them clearly. Decide the higher categories and let similar topics of existing cross-curriculum be grouped together and taught in the same field.	3.7	1.767
Do not impose limitations on the topics of the current cross-curriculum and let schools choose them freely on their own.	3.5	1.080
Include all the topics of the cross-curriculum in the existing curriculum and let them be taught in classes.	2.7	1.494
Keep the 39 learning topics in the current cross-curriculum.	1.5	0.707

#### 4. 범교과 주제 통합을 통한 적정화 방안

범교과 주제 통합을 통한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교과와 범교과 학습 주제 설정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① 개별교과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주제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② 개별교과에서 다룰 수 있지만 독립된 주제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③ 개별



교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개별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될 필요가 없다.’의 방안을 제시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교과에 통합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Result of the Second Delphi Survey on the Integration method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s

	①	②	③	④
Democratic citizenship	1	4	2	2
Character education	1	1	2	2
environmental education	1	3	3	1
economic education	1	1	5	2
energy education	2	1	3	1
working spirit	1	2	4	1
health education	1	2	3	2
safety education	1	4	2	1
sex education	2	3	2	1
consumer education	0	2	4	2
career education	2	4	1	1
Unification Education	0	1	4	4
National Identity Education	0	3	2	2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0	3	2	2
maritime education	0	2	2	3
informationization & information ethics	1	4	2	1
upright & anti-corruption ed.	1	3	2	2
water protection ed.	0	1	2	2
Sustainable Development ed.	1	2	1	3
gender equality ed.	0	4	3	1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0	1	2	2

human right education	1	3	2	2
safety & Disaster Preparedness ed.	1	1	1	1
education for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0	3	3	2
leisure education	0	2	2	4
Patriots & Veterans education	0	1	2	3
filial duty, respect for the aged & traditional ethical ed.	0	1	4	2
Child &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0	0	0	4
Multicultural Education	0	2	3	2
cultural artistic education	0	2	2	3
understanding for agriculture & farm village	0	4	1	3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1	2	1	3
Media Education	0	1	2	4
communication & Discussion-centered education	1	2	1	5
essay-writing education	0	1	4	3
Korean cultural history Education	0	1	2	4
Chinese character education	1	1	2	5
Green Education	0	1	1	4
Dokdo Education	0	4	3	1

- ① Since it is hard to deal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it should be presented as an independent topic in cross-curricular learning.
- ② Though it can be dealt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it is better to leave it as an independent topic for cross-curricular learning.
- ③ Because it can be dealt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opics list of cross-curricular learning.
- ④ Regardless of whether it can be dealt with in an individual subject or not, there is no need to present it as a topic for cross-curricular learning.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따른 통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개별 교과교육을 통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에서 나타나듯이 특정한 하나의 교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교과를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교과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범교과 주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교과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제시되었다.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주제들이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 되거나 강조되는 주제들은 ‘개별 교과에서 다룰 수 있지만 독립된 주제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교육, 양성 평등 교육 등은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된 주제로서 다양한 교과에 걸쳐 다루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남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안전교육, 진로교육, 독도교육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거나 교육현장에서 중시되고 있는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교과에서 다루는 것과 별도로 범교과 학습 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한편, 개별교과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제에 대해서는 ‘개별 교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경제교육, 소비자 교육, 통일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교육 등의 주제는 특정 교과에서 다룰 수 있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 제시되었다.

#### IV. 결 론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

제의 의미와 설정, 그리고 주제 선정의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전문가들의 인식이 한국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선정과 운영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념과 본질, 성격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와 본질, 성격에 대한 공유된 인식의 결여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현장에 적용할 때 그 교육적 의의와 효과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할 수 있다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범교과 학습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범교과 학습 주제의 의미와 선정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때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왜 선정되어야 하며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그 내용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념과 본질, 성격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선정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단지 민원성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기 위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과 본질에 적합한 선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현장에 적용할 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중복성을 면밀히 따지고,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계되는 관련 교과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범교과 학습 주제 적정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범교과 학습 주제간 중복성을 줄이고 상위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보다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상위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도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의 방만한 제시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2015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범교과 학습 주제 감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Kang Hyeon-Suk & Jeon Ho-Jae, 2014). 범교과 학습 주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가·사회적 요구들을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것은 범교과 학습의 근본적 의미를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범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비판적인 시각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Lee, Mi Sook, et. al., 2009; Park, Soon Kyung, 2006; Park, Soon Kyung, et. al., 2014).

범교과 학습 주제의 체계화 및 역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범교과 학습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

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1개 영역(경제와 산업의 이해, 진로 교육과 가이드스, 건강교육, 환경교육, 시민교육, 의사소통, 수리기능, 학습기능, 대인적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 정보처리기능), 헝가리 7개 영역(국가의식, 유럽과 세계인식, 환경교육, 의사소통기능, 신체 및 정신 건강, 학습 기능, 진로교육), 뉴질랜드 8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아관리 및 경쟁능력, 사회적 협동적 능력, 신체적 능력, 노동과 학습능력), 일본 6개 영역(도덕교육, 국제이해교육, 정보교육, 환경교육, 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자원봉사활동), 중국 5개 영역(노동활동, 조회 활동, 체육 활동, 문화 활동, 오락 활동),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州)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British Columbia 주의 경우에는 7개 영역(생애발달, 환경, 양성평등, 정보기술, 다문화주의, STS, 특수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4개 영역(지식과 이해, 사고와 탐구, 의사소통,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나라들의 구성 내용을 보면 의사소통과 대인적 관계, 문제해결력과 정보처리기능, 신체적 능력 등에 중점을 둔 내용을 중심으로 4개 영역에서 11개 영역의 범위에 존재하고 있다(Lee, Sang-eun & So Kyung-Hee, 2008).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범교과 학습 주제의 상위 영역을 먼저 마련하고 하위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015 개정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범교과 학습 주제가 10개로 제시되어 있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지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39개의 주제에 비해 감소된 범교과 학습 주제는 일단 ‘적정화’라는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많고 적음에만 집중되는 논의에서 벗어나 체계화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한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제시되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어떠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범교과 학습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 핵심역량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텔파이 조사 결과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개의 상위 범주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 중복되는 주제를 통합하는 방안과 교육과정 총론에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그 역량을 상위범주로 설정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6개의 핵심 역량인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역량과 범교과 학습 주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변화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할 것인지, 또 어떠한 학습 주제가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르면 범교과 학습 주제를 새롭게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제에 포함시키거나 교과영역에서 교육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행복교육’과 ‘상호소통을 통한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많은 것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학교 폭력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상호소통을 통한 갈등해결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현장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요구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추가되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도출된 것이며 참여한 전문가 수의 한계로 인해 모든 전문가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 제시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IDREE(2005), Crossing-curricular topic in secondary education: Report of a CIDREE collaborative project, Consortium of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and Research in Education in Europe.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0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
- Kang, Hyeon-Suk & Jeon, Ho-Jae(2014), A Study on Application of Cross-Curricular topics in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1, 239~264.
- Lee, Mi-Sook(2010),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Educational Specialists and School Teachers on Cross-curricular topic in the National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37(3), 183~202.
- Lee, Mi-Sook, et. al.(2009). A study of the plan of the enhancement of cross-curriculum in national curriculum. Technical Report RRC 2009-5.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Sang-eun & So Kyung-Hee(2008), The Analysis of Cross-Curricular Approaches Described in the Curriculum Documents of Major Nations, Korean Society for Curriculum Studies, 26(1). 59~79.
- Ministere du l'Education(2001). Quebec education program: Preschoo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Québec: Ministère de l'Éducation.
- Ministere du l'Education(2007). Quebec education

- program: Secondary school education, cycle two. Québec: Ministère de l'Éducation.
- Park, Chang-Un & Kim, Kyung-Ja(2014), Cross-curricular topic and lesson hours outlined by legislation and government policy to be implemented at school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3), 71~93.
- Park, Chang-Un, et. al.(2014), A study on the problems of cross-curriculum in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645~663.
- Park, Hee-Kyung, Choi, Jin-Young & Lee, Kyung-Jin(2014),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iculum Document related to Cross-Curricular Learning in Sou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77~101.
- Park, Soon-Kyung(2006), Exploring the Problems of the Recent Korean Cross-Curricular Learnings and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2), 159~182.
- Park, Soon-Kyung, et. al.(2014). A Preliminary Study for Reform of the General Guide of National Curriculum. Technical Report CRC 2014-1. Seoul: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 QCA(2009). Cross-curriculum dimensions: A planning guide for schools.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09). P21 framework definitions. Retrieved September 1, 2014, from <http://www.p21.org>.
- Wang, Guan-En & Park Chang-un(2015), A Study on Limitations of Cross Curricular topic,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2), 53~70.
- 
- Received : 20 October, 2016
  - Revised : 06 December, 2016
  - Accepted : 10 December, 2016